

■ 2026 새해설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 “변화 주도·주민과 약속 실현에 행정 역량 집중”

민생경제회복·주민안전 5가지 정책 최우선 추진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도로 개설 등 인프라 투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주민과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2026년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속되는 경제 한파에도 흔들림 없이 일상을 지켜온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5가지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85곳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남구 동행카드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또 소상공인 희망대출 및 특례보증, 마케팅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군분로 토요아시아장을 내실 있게 운영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백운광장에는 또 하나의 소비공간이

자 광장 활성화의 성공 퍼즐인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조성을 완료해 지역 상권 핵심 거점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한다. 대촌의 국가·지방산단에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 입주자 본적화되고, 혁신지구로 변모하는 송암산단은 문화·디지털을 결합한 미래 자동차 애프터마켓 거점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약속은 문화가 일상이 되고, 여가가 삶이 되는 남구 건설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을 정체성을 강화한다.

백운광장과 양림동, 사직동, 방림2동을 잇는 구도심 재건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양림동 선교지구 세계유산 등재와 사적등 시간유체국 등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생활기반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주민들의 여가와 삶의 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남구 국민체육센터 개관과 덕남 힐링숲 캠핑장 및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야영장 등 도심 속 힐링 공간도 신속하게 문을 열 예정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 플랫폼을 구

축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보건·의료·돌봄·주거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행복남 복지 7979센터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와 1000원 택시 등 이동 약자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어르신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1인 가구까지 촘촘히 보살필 예정이다.

또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건설에 나선다.

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와 광주전 출입 통제 차단기 추가 설치,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등으로 안전도시 기반을 다지고, 206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진월 서문대로~봉선 대화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은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진월·봉선·효천·주월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행정 실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장 특대이와 민원 현장 확인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효덕동·월산동·백운2동·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한 통일열차 운영, 시민 통일강사 평화도슨트 운영 등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김병내 청장은 “새해에도 현장에 답을 찾고 실천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21만 주민과 함께 민생을 지키고, 남구의 미래 성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함께해 온 노력이 성과로 찾아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며 “함차게 달리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행복과 여유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서구, ‘안전·민생·자살예방’ 공무원 증원

6급이하 6명...재난안전상황실 등 배치

광주 서구가 안전, 민생경제, 자살예방 등 필수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을 늘린다.

서구는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력배정에 따른 안전 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0명에서 1046명으로 6명 늘이는 게 핵심이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30명을 유지한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 6명

(990명→996명)이 증원되며, 3급(1명), 4급(9명), 5급(65명)은 변동이 없다.

서구는 이에 맞춰 재난안전상황실 3명, 자살예방 1명, 골목경제활성화 1명, 하천 유지관리 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6명 증원이 확정되면 이에 필요한 연간 인건비는 3억7114만2000원(6185만7000원×6명, 2026년 7급 7호봉 기준)으로 나왔다. 여기에는 2026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 3.5%가 적용됐다. 인건비는 자체 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계약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원고 ‘해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관급자제 계약·납품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힌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정부 갑경중 재판장은 A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달리 특정 납품업체가 제작한 무방류 화장실 4대(총 4억1800여만원)를 구매하는 것처럼 관급자제 구입의뢰서에 기재했다.

이에 따라 계약은 단가가 더 높은 무방류 화장실을 기준으로 체결됐지만, 실제로는 설계대로 이동식 화장실과 샤워실

각 2동만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1억2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고, 장흥군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전남도는 군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업무상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동식 화장실과 무방류 화장실의 차이는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설계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능상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납품 확인 없이 검수확인서를 작성했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하던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가는 대한

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법행에 나아갔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꽃감이 익어가는 계절 12월 장성군 북하면 한 대봉감 농가에서 꽃감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봉시로 만드는 장성꽃감은 큰 일고자과 바람이 많은 천혜의 지역에서 자연 건조돼 맛이 좋은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꽃감은 비타민A와 C가 풍부한 겨울철 건강보조식품으로 고혈압 예방과 숙취 해소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동구, 충장로 구역 넓혀 ‘판’ 키운다

황금동 일부 상권활성화구역 편입...‘홍콩 골목’ 성과

야간·체류형상권 전환 가속도...관광·문화 연계 강화

광주 동구가 공실 증가로 침체를 겪어온 충장로 상권의 반동을 위해 사업 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체류형·야간 중심 상권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동구는 12일 ‘충장상권르네상스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변경(안)’을 오는 26일까지 14일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상권 공실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체 구간을 보완하고, 성과가 확인된 지역을 사업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황금동 일부 편입이다. 기존 충장로 1~5가와 금남·충금지하상가에 더해 중앙로 160번길 일대 황금동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 면적은 기존 25만688㎡에서 26만2981㎡로 확대됐다.

동구는 충장로 중심의 선형 상권 구조에서 벗어나 인근 골목까지 연계하는 ‘면(面) 단위 상권’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구역 확대에는 지난해 조성된 이른바 ‘홍콩 골목’의 성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던 충장로 안길 일대 점포를 리모델링해 선술집과 포차,

위스키 바, 사바브 전점점 등을 집적시킨 이 공간은 개장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초 기준 방문객 1만7000명, 매출 3억2000만원을 기록하며 새로운 소비 거점으로 떠올랐다. 단순 통행 중심이던 충장로에 체류형 소비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업 내용도 이에 맞춰 조정됐다. 핵심 포 육성 예산은 기존 1700만원에서 3억원

과 밤이 모두 살아 있는 상권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관광·문화 연계 전략도 강화된다. 광주관광공사와 동구문화관광재단 등과 협력해 ‘충장골목여행’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충장마을백화점’ 사업 대상지도 충장로 5가에서 4가까지 넓힌다. 광주극장과 인근 로컬 브랜드를 연계한 식음료(F&B) 입점도 유도에 충장로만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 관계자는 “충장리온페스타와 로컬 브랜딩 사업을 통해 충장로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사업 구역 확장은 인근 상권으로 효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으로 대 폭 늘렸다. 동구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빈 점포를 해소하고, 신규 상인 유입을 촉진하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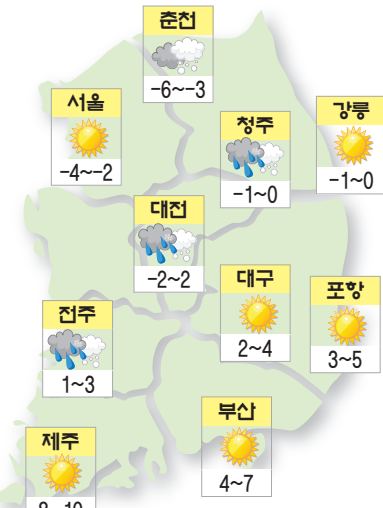
충장로와 황금동 일대를 야간 관광과 소비의 중심축으로 키워, 낮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 구역도

오늘의 날씨

예보	07:41	달출	02:52
예보	17:41	달몰	13:00



	광주	1~5
	목포	3~4
	여수	4~6
미세먼지 확이하세요!	순천	2~6
	구례	0~4
광주	개남	2~6
☹️	임도	4~7
진남	흑산도	5~7
☹️	고흥	2~7
	진도	3~7

목포	밀물(고)	09:54 / 21:35
	썰물(저)	02:28 / 15:55
여수	밀물(고)	05:31 / 16:47
	썰물(저)	11:33 / 23:08

상승 차량털이 40대 구속

만년필 ○...상승적으로 차량털이를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쇠파랑형. 광주 북부경찰은 12일 상승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두안동 일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5대에 침입해 현금 등 9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을 열어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 별도의 기술 파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최근 일감이 줄면서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제법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 임영진 기자 looks@

운전면허 갱신 상정 기준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상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월1일~12월31일)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생일이 10월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026년 4월2일부터 2027년 4월1일’로 변경된다.

다만,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 소지자의 개정 이후 첫 갱신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인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을 함께 적용한다.

정확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공단 누리집(www.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자신의 갱신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